

2021 Dec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1월 동향

FOMC의 테이퍼링 결정에도 시장 선반영 영향으로 상단 제한되었으나, 연준의장 재선임에 대한 시장의 매파성향 인식과 한은 금리인상 등으로 상승하다 오미크론 변이에 변동성 확대되며 큰 폭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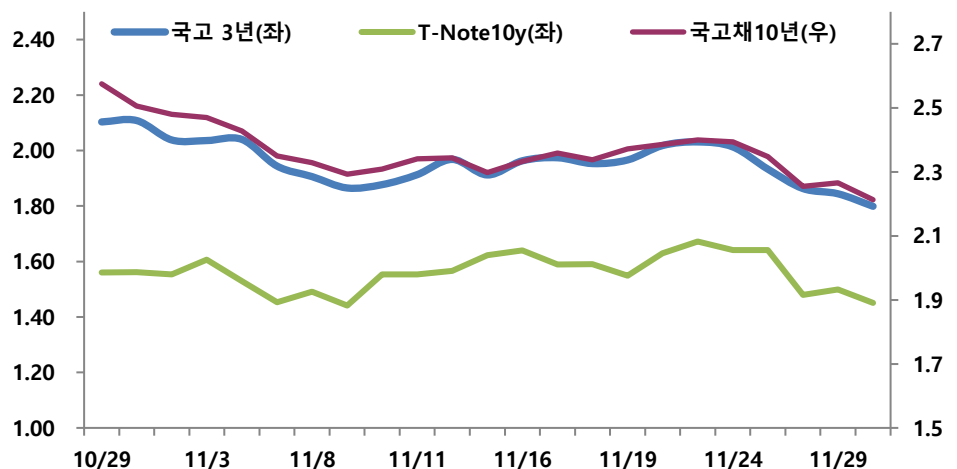
FOMC의 전격적 테이퍼링 실시에도 연준의 이후에 대한 완화적 스탠스와 정책 당국의 국고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금리 하락

미 CPI 급등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과 한은 금통위에 대한 매파적 금리인상 기대 등이 반영

연준의장 재선임 속 매파 인식, 한은 금리 인상 결정 등에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 변동성 확대 속 큰 폭 하락

- 11월 초, FOMC에서 테이퍼링 전격 시행 결정되었음에도 시장 선반영 영향과 한은의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하락 출발 후, 미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연동
 - 월 초,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 결정에도, 시장 예상 부합하는 조건 속 향후 금리인상은 별도 정책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란 연준의장 견해에 미 국채금리 소폭 상승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
 - 이어 정부의 긴급 국고채 조기 상환 이슈와 한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단순 매입 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는 양상
- 중반, 미 CPI가 30년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외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미친 가운데 호주 등에서의 금리 상승 요인과 한은 금통위 경계감 유지 속 상승세 시현
 - 중반, 미 CPI가 30년래 최고로 상승하며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
 - 여기에 호주 금리 급등 소식 등이 국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한은 금통위에서의 매파적 금리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국고채 금리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
- 후반, 연준 의장 재선임 소식이 향후 매파 성향을 강화할 것이란 시장 인식 속 한은 금리인상 결정이 국고채금리 상승에 영향 미쳤으나, 코로나 변이 재부각에 경기 재하강 우려 확대되며 급락 시현하는 가운데 마감
 - 후반, 연준 의장 재선임이 향후 금리인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장 인식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 이어,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 속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의 매파적 성향 등도 대내적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큰 폭 하락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10월 평균
국고채(3년): 1.95%
T-Note(10년): 1.56%

12월 전망

물가 상승 압력 지속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 긴축 가능성의 시장 인식 확대 등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 등은 금리 상승 압력을 다소 완화할 요인으로 판단

평균	1Q21	2Q21	3Q21	4Q21
국고채(3y, %)	1.04	1.12	1.45	1.9 ^(F)

국내 수출 개선세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등에 대한 한은의 추가 선제적 대응 가능성 상승 확대

- 최근 코로나 변이 국면 속에 전월 국내 경기선행지수 하락 추세 및 산업생산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수출 경기 호조가 성장 경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한은의 향후 추가 금리인상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측면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월 국내 경기선행지수 추세가 6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산업생산도 감소 국면을 보이며 국내 경제 모멘텀이 다소 약화를 보이는 양상
 - 그럼에도 수출 경기의 호조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한은은 현 경기상황에 비춰 금리 수준을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판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속에 물가 전망 상향과 매파적 금리 점도표 상향 가능성 상존 등이 국내외 금리 상승 모멘텀 요인

-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일시적 인식 변화와 12월 FOMC 물가 전망 상향 가능성이 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예상 속 금리 점도표 상향도 국내 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연준 의장의 재선임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존 '일시적' 기초를 탈피한 후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의 증가를 경계한 가운데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증대되는 국면
 - 이는 금리인상의 시계를 앞당기는 작용을 할 전망 속에 12월 FOMC에서의 물가 전망 상향, 금리 점도표 상향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국내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월 국고채(3Y) 금리는 1.75-1.95% 예상

-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내외적 거리 두기와 봉쇄 정책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파급 영향의 정도 또한 불확실 함에 따라 정확한 판단 결과가 내려지기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상승세를 제한 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며 불확실성을 키움에 따라 대내외적 거리 두기와 봉쇄 정책 재가동 가능성 등이 높아진 상황
 - 다만, 변이의 영향이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 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매파적 기초 ·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축소와 금리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 재하강 우려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FOMC에서 전격적 테이퍼링 실시에도 금리인상과의 별개 정책에 대한 연준의장의 언급 등이 달러 약세 흐름을 제공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 속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하며 1,190원대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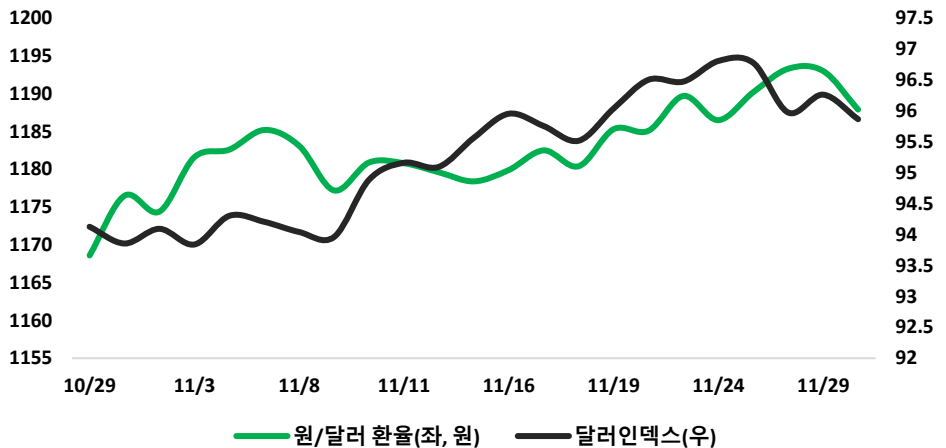
테이퍼링 실시에도 달러 약세 나타낸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속 환율은 상승

미-중 화상 정상회담 기대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 유지 양상

연준 의장 재선임 소식이 매파적으로 시장에 인식된 가운데 코로나 새 변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으로 환율변동성 확대

- 월초, FOMC의 테이퍼링 실시에도 시장 예상 부합 등으로 달러 강세 제한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함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
 - 월초, FOMC의 테이퍼링 실시에도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 속에 특히,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에 조건을 별개의 정책으로 언급함에 따라 달러가 다소 약세 보이며 출발
 - 이어 미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표 시장 예상 상회에도 달러 강세 전환 속 환율도 점진적 상승
- 월 중반, 인플레이션 등락 양상을 반영한 움직임 지속한 가운데 미-중간 화상 정상회담 기대가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 속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으로 상승
 - 중반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미-중간 화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소폭 환율 되돌림 시현
 - 이후로도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금리 상승 등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낮춤에 따라 외국인 역송금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
- 후반, 연준 의장 재선임 소식이 시장에 연준의 매파적 인식을 반영시킨 가운데,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형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양상 시현하며 마감
 -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이 환율에 큰 파장을 주지 못한 가운데 오히려 연준 의장의 재선임 소식에 따른 향후 연준의 매파적 시장 인식에 달러 강세 반영 등으로 상승세 유지되는 모습
 - 이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영국에도 주요국 추가 봉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기적 영향에 따라 환율은 하락 추세 전환하며 1,180원대 후반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83.4
11월말 달러/원 환율 : 1,187.9

12월 전망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연준의 매파적 긴축 신호 영향 속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파급 영향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등으로 환율 상승 압력 다소 확대 예상

평균	2Q21	3Q21	4Q21	1Q22
달러/원 환율(원)	1,118	1,159	1,180 ^(F)	1,185 ^(F)

연준의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가능성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파월 의장 재선임 후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 기조의 전환 시사 속에 12월 FOMC에서의 물가 전망 상향과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등에 달러 강세 강화 될 것으로 예상

- 파월 의장 재선임 이후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 주장을 배제하며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시 긴축 기조 선회 스탠스를 보인 점이 시장에 매파적 색채로 인식되며 달러 강세를 견인할 전망
- 여기에 12월 FOMC도 최근 연준 스탠스를 반영한 색채를 보일 전망 속에 매파적 금리점도표 인상 가능성 등도 달러 강세 탄력을 배가할 요인으로 판단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대내적 돌파감염 영향 등에 따른 경제체질 약화가 단기 외국인 투자신뢰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듯

-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대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기적 경제 충격 요인임을 감안하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 유로존에서 주요 국가들에 변이 확진자가 재확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우려가 안전 자산 선호를 강화할 전망. 다만 그 영향 정도에 대해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뉴스에 따라 시장은 on-off 리스크 상황을 주시할 것임에 따라 환율변동성은 다소 커지는 쪽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대내적 위드코로나에도 돌파감염 급증 속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 경제 체질 약화 가능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단기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2월 달러/원 환율
1,165 ~ 1,195원 변동 예상

-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단기적 변화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가운데 연말 수출 관련 달러 수급 우위 영향 등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오미크론 파급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에 현 단계에서는 일부 봉쇄 가능성 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매파 스탠스 역시 다소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존재함은 원화 강세 요인
- 여기에 연말에 따른 국내 수출 개선 기조 영향의 달러 수급 개선 영향 역시 원화 강세를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이 1,190원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기조 전환 속 테이퍼링 조기 축소 가능성 등 오미크론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단기 완화적 성향 가능성 한은의 매파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각국의 워드코로나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한 오미크론 변이가 불확실성을 키우며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인플레이 기조 등에 따라 엔화는 114엔 전후 등락 예상. 엔/원 환율은 연말 수급의 원화 강제 우위에 소폭 하락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4.0
11월 엔/원 평균환율 : 1,037.6

12월 엔/원 예상범위 : 1,010~1,065

- (동향) 미 PCE 물가 상승 속 연준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제 반영으로 약세 출발 후, 미 금리인상 정책 언급에 국채금리 하락 속 엔캐리 수요 확대에 약세 지속. 이어 미 CPI 상승에 의한 미 금리 상승 반영되며 캐리 트레이딩 수요에 따라 방향성 결정되는 양상 시현하다 독일 등 유로존 주요 국가의 코로나 재확산 기조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강제 반전. 후반 들어 연준 의장 연임 소식이 달러 강제 견인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 마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 약세 전환 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달러 강제 심화 반영되며 약세 흐름 속 마감
- (엔/원 전망) 연준 긴축 강화 움직임에 의한 미 금리 상승 영향의 엔화 상승 압력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영향이 상충하며 114엔대 전후 등락 예상
 - 연준 테이퍼링 조기 종료 가능성 속 금리인상 시계가 당겨질 수 있는 측면이 미-일 금리차 확대와 달러 강세로 작용하며 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당 부분 선반영 된 점은 약세 제한 요인
 - 반면, 일본내 워드 코로나 속 확진자 감소 영향이 경제에 긍정적 일수 있는 측면은 엔 강제 요인이거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영향에 달러 강세가 상기 요인과의 상충 속에 일정 레인지 등락 시현하게 할 전망이다. 엔/원 환율은 원화의 상대적 강제 예상으로 하락 전망

유로/원 전망

유로존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추가 변이 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이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화정책상 연준 조기 긴축 기대도 유로 약세 요인. 유로/원은 수급 요인 등의 상대적 원화 강세로 하락 예상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408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9.9

12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55~1,375

- (동향) FOMC 테이퍼링에도 달러 약세 영향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소식에 따른 경제 개선 기대에 강제 출발. 이어 미국의 높은 CPI 상승세에 달러 강제 전환으로 약세 흐름 시현. 중반, 유로존 CPI 최고치 경신에 따른 영향이 일시 유로 강제 견인했으나, 주요국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으로 재차 약세. 후반 들어, 유로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반영 속에 미 연준 의장 재선임에 따른 향후 매파적 연준 스탠스 우려에 달러 강제 반영된 가운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전반적 재봉쇄 움직임 보이며 위험회피 강화 등으로 약세 시현하며 마감
- (유로/원 전망) 코로나 재확산 우려 증폭 속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으로 상대적 경기 회복세 주춤하는 가운데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 반영 등을 감안하면 달러 대비 약세 흐름 예상
 - 유로존의 경기회복력 일부 지표의 개선에 제한되는 반면, 최근 코로나 확산세 및 변종 오미크론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선호 안전자산 강화 요인 등으로 상대적 약세 예상
 - 여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대비해서도 통화 완화를 지속할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도 유로 약세 요인. 유로/원 환율은 상대적 원화 강제 요인에 따라 소폭 하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美 Beige Book 발표	2	3	4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란치			한 11월 수출/수입(24.0%/37.8%, YoY) 11월 무역수지(\$1690M) 11월 Markit PMI 제조업(50.2) 미 11월 Markit 제조업 PMI(59.1) 유 11월 Markit PMI 제조업(58.6) 중 11월 Caixin 제조업 PMI(50.6)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한 11월 CPI(0.1% MoM, 3.2% YoY) 미 11월 ISM 제조업지수(60.8)/ISM 고용(52) 11월 ISM New Orders(59.8) 11월 ISM 구매물가지수(85.7) 유 10월 PPI(2.7% MoM, 16.0% YoY) 10월 실업률(7.4%)	한 11월 외환보유고(\$469.21b) 미 11월 ISM 서비스(57) 11월 Markit PMI 종합(56.5)/서비스(66.7) 10월 제조업수주(0.2%) / 내구재주문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0.4% MoM, 4.9% YoY) 유 11월 Markit PMI 종합(55.8)/서비스(56.6) 10월 소매판매(-0.3% MoM, 2.5% YoY) 일 11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52.1)/종합(52.5) 중 11월 Caixin 종합 PMI(51.5)/서비스 PMI(53.8)	미 11월 경제활동 참가율(61.6%)
5	6	7 RBA 통화정책회의	8	9	10	11
유 12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18.3) 중 11월 무역수지(\$84.54b) 11월 수출/수입(27.1%/20.6%, YoY) 11월 외환보유고(\$3217.61b) 독 10월 공장수주(1.3% MoM, 9.7% YoY)	한 10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3Q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5.0%) 3Q 단위노동비용지수(8.3%) 10월 무역수지(-\$80.9b) 유 12월 ZEW 서베이 예상(25.9) 3Q 고용(0.9% QoQ, 2.0% YoY) 3Q 정부지출 전년기대비(1.1%) 독 10월 산업생산(-1.1 MoM, -1.0% YoY) 호 12월 RBA 기준금리(0.10%)	미 10월 소비자신용지수(\$29.913b) 일 11월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10월 실질 임금총액(-0.6%, YoY) 10월 가계 소비지출(-1.9%, YoY) 독 12월 ZEW 서베이 예상(31.7)	일 11월 통화량 M2(4.2%), M3(3.7%, YoY) 4Q BSI 대명 전업종 QoQ(3.3) 4Q BSI 대명 제조업 QoQ(7.0) 중 11월 CPI/PPI(1.5%/13.5%, YoY) 11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826.2b) 11월 통화공급 M0(6.2%, YoY) 11월 통화공급 M1(2.8%, YoY) 11월 통화공급 M2(8.7%, YoY)	미 11월 CPI(0.9% MoM, 6.2% YoY) 11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1.2%, YoY) 11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1.6%, YoY) 10월 도매무역 판매(1.1%, MoM) 일 11월 PPI(1.2% MoM, 8.0% YoY)	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향	
12	13	14	15 美 FOMC(~16)	16 ECB, BOE 통화정책회의	17 BOJ 통화정책회의(~28)	18
일 11월 무역수지(- ¥67.4b) 10월 핵심기계수주(0.0%, MoM) 10월 핵심기계수주(12.5%, YoY)	한 11월 수출물가지수(1.6% MoM, 25.3% YoY) 11월 수입물가지수(4.8% MoM, 35.8% YoY) 미 11월 FRB 소기업 낙관지수(98.2) 11월 PPI(0.6% MoM, 8.6% YoY) 유 10월 산업생산(-0.2 MoM, 5.2% YoY) 일 10월 설비가동률(-7.3%, MoM)	한 11월 통화공급 L(0.2%, MoM), M2(0.5%, MoM) 11월 실업률(3.2%) 미 FOMC 금리 결정(0.00% - 0.25%) 11월 수출물가지수(1.5% MoM, 18.0% YoY) 11월 수입물가지수(1.2% MoM, 10.7% YoY) 중 11월 소매판매(4.9%, YoY) 11월 광공업생산(3.5%, YoY) Powell Holds Press Conference Following FOMC Meeting	미 10월 기업채(0.7%), 설비가동률(76.4%) 11월 주택착공건수(-0.7% MoM) 11월 건축허가(4.0% MoM)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39) 11월 제조업(SIC) 생산(1.2%) 11월 광공업생산(1.6%, MoM) 유 11월 ECB 단기수신금리(-0.5%) 영 12월 영란은행 기준금리 0.10%	미 12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유 10월 건설생산(0.9% MoM, 1.5% YoY) 11월 CPI(4.1% YoY) 12월 유로존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일 11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잔고(-0.1%) 11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 11월 수출/수입(9.4%/26.7%, YoY) 11월 무역수지(- ¥67.4b) 독 11월 PPI(3.8% MoM, 18.4% YoY)	독 12월 IFO 기업환경지수	
19	20	21	22	23	24	25
유 10월 ECB 경상수지(18.7b)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85%)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5%) 11월 산업생산(24.6%, YoY)	한 11월 PPI(8.9%, YoY) 독 1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	미 1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76) 3Q GDP물가지수 / GDP연간화QoQ 3Q 개인소비 유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6.8)	미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11월 PCE 디플레이터 11월 기준주택매매(0.8%, MoM)	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향 11월 신규주택매매 일 11월 전국CPI(0.1% YoY) 11월 PPI서비스 11월 연간 주택착공지수		
26	27	28	29	30	31	
한 11월 소매판매 일 11월 소매판매	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107.6) 미 12월 델리스 연준 제조업 활동 10월 FxFA 주택가격지수 일 11월 광공업생산, 실업률	한 11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서비스업 미 1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한 11월 광공업생산,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변동 미 12월 MNI 시카고 PMI 11월 미결주택매매 유 11월 M3 통화공급(7.7%, YoY)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중 12월 PMI 제조업/서비스업/종합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